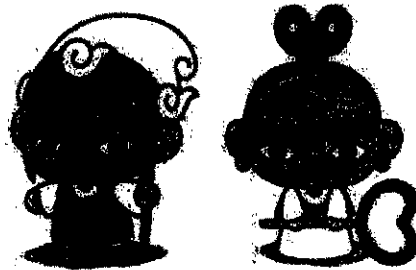


2009.11.23(월) ~ 12.23(수)
(제165회 제2차 정례회)

·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2010.9.16 ~ 10.16 -

시 정 질 문 답 변 서



제 천 시

시정질문 현황

[회기명 :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답변일 및순서	의원명	질문내용	답변부서	답변자
2009. 12.3 (목)	1 양순경 의원	○ 제천시 관내 도서관 시설 확충방안과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 제천시 관내 도서관 현황(예산 포함) - 제천시 관내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예산 포함) - 향후 도서관 설립 방안	시립도서관	행정 복지 본부장
	2 이정업 의원	○ 디자인 명품도시로서의 도시미관에 대하여? - 도시환경과 공공디자인 추진사업현황은? - 도시미관 및 입간판 관리실태는? - 불법 옥외광고물·입간판의 지도단속실적과 조치 결과('08-'09) 및 향후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책은?	건축 디자인과	시장
	3 박성하 의원	○ 제천시 성장동력에 대한 미래전략은? - 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와 제천시 발전의 연계성 및 향후계획 (한방경제과) - 제천시 관광인프라 구축현황과 체류형 관광지 로서의 문제점 및 계획(문화관광과) - 영상문화도시로서의 현재와 미래계획(문화관광과) - 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관련한 문제점 및 대안(한방경제과)	한방경제과 문화관광과	시장
2009. 12.4 (금)	1 유영화 의원	① 주요사업(민자(民資) 포함) 추진현황에 대하여? - 지역종합개발지구(웰빙휴양타운)추진현황 및 실적 (지역개발과) - 국가철도망 구축 수정계획에 대한 지역과제 반영 (강남권 철도망 연결계획)(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	미래 경영 본부장
		② 종합연수타운, 차이나타운 추진현황 및 실적(전략기획실)	전략기획실	전략기 획실장
		③ 도심공동화 대책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비책은?(최근 3년간 시내 동(洞)별 인구이동현황) - 도시재생사업 추진의의는? - 서부동지역을 포함한 낙후지역의 공공개발의의는?	지역 개발과	미래 경영 본부장
		④ 제천시 공용재산(公用財産)관리에 대하여? - 제천시 공용재산 현황 및 유지관리비용 - 제천시 공용재산 위탁관리현황, 유지관리비용 및 보조내역	회계과	회계 과장
		⑤ 제천시 사회복지에 대하여? - 사회복지예산 총괄현황 및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은? ('07-'09 증감현황) - 지역복지계획 수립현황은?	사회복지과	행정 복지 본부장

답 변 서

질 문 의 원	양 순 경 의원 (자치행정 위원회)
답 변 자	행정복지 본부장 이 춘 호
제 목	제천시 관내 도서관시설 확충방안과 관리운영실태에 대하여?
<p><u>질문요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천시 관내도서관 현황(예산포함) ○ 제천시 관내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예산 포함) ○ 향후 도서관 설립 방안 	
<p><u>답변내용</u></p> <p>○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관내 도서관 시설 확충 방안과 관리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 첫 번째, 제천시 관내 도서관 현황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천시 관내에는 제천시립도서관에서부터 이동도서관, 아파트 단지 내 자율도서관에 이르기까지 17개소의 크고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표 1 참조> - 도서관의 건립 연혁을 살펴보면, 1991년 故 김학임 여사의 부지기증으로 1994년 8억원의 사업비로 제천여성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1996년 제천시립도서관과 1997년 봉양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 또한, MBC 문화방송 ‘느낌표’ 프로그램을 통한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 12월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의병창의의 고장으로서, 의병정신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갈 의병 관련 연구 및 교육 문화 활동을 위한 전문 도서관인 의병도서관을 2006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아동복지와 독서문화가 만나는 신개념 도서관인 신백아동복지관과 하소아동복지관이 2007년 개관되어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 등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7개소가 2005년 이후 단계별로 개설되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을 위한 오로라도서관은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며, 여행객을 위한 터미널 도서관은 우리 시민의 편의 제공은 물론 우리지역을 찾은 외지인에게 이미지 개선의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 한편, 제천어린이 도서관, 하소·신백 아동복지관(내보물 1호·한울타리도서관)은 재단법인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에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13만5천명의 작은 중소도시지만 크고 작은 17개의 도서관을 설치하여 인구 8천명당 1개소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도서관 자료현황과 2009년도 도서관별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09년 10월말 현재 관내 도서관의 총 보유 장서는 35만5천권으로, 제천시민 1인당 2.6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를 도서관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 12만4천권, 여성도서관 3만9천권, 봉양도서관 4만4천권, 의병도서관 1만4천권, 어린이도서관에 5만5천권, 이동도서관 4만4천권, 아동복지관

2개소에 2만권, 오로라도서관 등 자율도서관 7개소에 1만5천권을 각각 보유하여,

장서 보유량에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별표 2 참조>

- 이어서, 2009년도 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천시 도서관 관련 예산액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액을 포함하여 모두 29억 8천 8백 8십만 9천원으로 제천시 일반회계예산의 0.63%에 해당합니다. 제천시에서 직영하는 시립도서관과 여성, 봉양도서관 및 의병도서관 예산으로 신간도서구입비 2억 2천 만원과 운영비 등 21억 2천 4백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 위탁 중인 어린이도서관 위탁비용으로 4억원을, 그리고 신백 및 하소아동복지관 예산으로 2억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 두 번째, 제천시 관내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립도서관에서는 총 48개의 프로그램으로 640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으며 연인원 16,80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2개 강좌로 구성된 문화 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 논술 등 방학 특강, 著者級 강사로부터 듣는 다양한 학부모 교양강좌 등이 있으며, 이 중 인문학 강좌인 ‘文史哲 놀이터’는 신선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독서 백신교실’, ‘도서관 논술아카데미’ 등은 우리 시민의 독특한 색채를 띠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어르신 독서 문화 개척을 위하여 경로당을 방문하여 추억의 방화 상영 및 대활자본·어르신 신문 낭독하여 드리는 ‘경로도서관’은 그 동안 방치되어 온 어르신 독서문화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외 국비 사업 지원 유도에도 노력하여 지난 8월 의림지에서 개최된 책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등 4개 사업을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 어린이 도서관에는 연간 총 76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12,242명이 참여하였으며,
- 하소·신백 아동복지 도서관에서는 연간 127개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연인원 6,062명이 참여하면서, 신개념 도서관인 아동복지도서관의 성공적 정착을 이루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년 1년간 제천시 관내 도서관에서 실시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총 251개에 이르며, 연인원 35,110명이 참여하였으며, 관련 사업비는 1억4천5백2십만원(국비 1천6백6십만원 포함)가 투자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 번째 향후 도서관 설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제천시에서는 도서관 운영 관련하여 2008년 4월 책의 날을 맞이하여 『책세권(冊勢圈) 제천』 브랜드를 선포하였습니다.
- 이는 제천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도서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제천시의 도서관은 규모를 갖춘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 도서관은 건물 규모의 대형화보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추진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일부러 중심 도서관으로 찾아 와야 이용 할 수 있던 것을, 책 등 간단한 독서콘텐츠 이용과 관련, 도서관에서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방향으로 강화 할 것입니다.
- 기존의 이동도서관도 이의 일환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일정공간을 활용하는 자율도서관 역시, 주민편의를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시도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 원거리 지역의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시설·종교시설 및 주유소 등의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도서관 대행 역할을 하는 ‘희망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도서관은 2009년 초에 원거리 지역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주유소,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12개를 지정하여 4월부터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여건이 맞을 경우, 자율도서관과 희망 도서관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 한편, 현재 제천시 강제동 일원에 대단위주택단지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제천시 강저지구 국민임대 주택단지’의 부지 면적은 61만5천㎡로, 예정 수용인구는 1만 4천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공사가 완공되면 우리지역에 새로운 인구 밀집지역이 조성되는 것으로, 주민입주 이후에 적절한 규모의 도서관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입주 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 교육도시의 새로운 기준은 ‘도서관의 수준’이라는 사명으로 제천시의 도서관 확충과 내실있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양 순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관내 도서관 확충방안과 관리운영실태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표1〉 제천시 관내 공공도서관 현황

館種別	명칭	개소수	면적(㎡)	개관년도	운영방법	비고
계		17				
일반도서관	시립도서관 본관	1	2,883	1996	직영	지하1, 지상3층
여성전용	여성도서관	1	965	1994	직영	지하1, 지상3층
농촌도서관	봉양도서관	1	759	1998	직영	지상2,3층
전문도서관	의병도서관	1	1,758	2006	직영	지하1, 지상3층
이동도서관	이동도서관	2	1호차:1995년 3월7일 2호차: 2003년5월 6일	1994	직영	시내1, 시외 1
어린이전용	기적의도서관	1	817	2003	민간위탁	지상1층
아동복지 도서관	한울타리 도서관, 내보물1호도서관	2	각 100	2007	민간위탁	지상2층
작은도서관	자율도서관	7	35~130	2005~ 2009	민간참여	민:공간+자원봉사 官:책자+집기
희망도서관	터미널 도서관 休	1	10	2009	민간참여	민:공간 官:책자+집기

자율도서관 현황

명칭	위치	개소	면적(㎡)	개관년도	비고(봉사아파트 단지별 세대수)
계		7			
청구꽃다지도서관	하소동 청구① 관리소 지하	1	89㎡	2005	청구 498세대
한마음도서관	신백동 먹일한마음③지하	1	42㎡	2006	먹일 420세대
지구별도서관	중앙로 YWCA 2층	1	67㎡	2007	직장여성, 다문화
라운도서관	하소동 그린코아루② 관리2층	1	98㎡	2008	코아루 702세대
키즈랜드도서관	하소동 힐스테이트③ 관리동	1	49㎡	2009	힐스테이트 358세대
오로라도서관	교동 제천시다문화센터	1	50.4㎡	2009	다문화가정
장락꿈나무도서관	장락주공 3단지 관리소2층	1	52.8㎡	2009	총 3,056세대 1단지:939 2단지:712 3단지:542 4단지:347 천일:267 로즈월:249

〈별표2〉 인근지역 공공도서관 장서 보유현황

지역별	인구수(명)	장서수(권)	1인당 장서 보유현황(권)	비 고
청주시	647,645	269,997	0.42	
충주시	209,117	175,569	1.19	
원주시	309,710	161,210	0.52	
김해시	489,899	285,633	0.44	
순천시	271,961	380,026	1.40	
계	5개도시			

답 변 서

질 문 의 원	이 정 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답 변 자	미래경영본부장 윤 종 섭
제 목	디자인 명품도시로서의 도시미관에 대하여?
<p><u>질문요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환경과 공공디자인 추진사업현황은? ○ 도시미관 및 입간판 관리실태는? ○ 불법 옥외광고물·입간판의 지도단속실적과 조치결과('08-'09) 및 향후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책은? 	
<p><u>답변내용</u></p> <p><input type="checkbox"/> 항상 지역발전과 경제활력화를 위해 적극적 입장에서 정성을 다해 주시는 강현삼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디자인 명품도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이정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그동안 우리시는 특히 민선3기를 시작으로 도시브랜드와 도심재생 작업의 차원에서 「꿈의 도시 제천」이라는 비전 아래 현재까지 끊임 없이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주입시키는데 주력해 왔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제,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가간의 경쟁을 뛰어넘어 지역간, 도시간의 경쟁이 불가피한 가운데 디자인을 이용한 도시브랜드 구축사업이 서울을 중심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우리 제천도 이미 『디자인 명품도시, 제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공공디자인 정책을 도입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p>이러한 시기에 도시 미관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에서 질문하신 이정임 의원님께 고마움을 표합니다.</p>	

□ 먼저, 도시환경과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을 위한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 제천시 중심가로미관을 위해 의림대로(제천역~청전교차로) 2.4km구간을 2008. 9월 시범가로로 지정하여 대로변 점포들의 간판을 디자인가이드라인 규격에 맞게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옥외광고물시범가로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제천역에서 중앙교차로까지 총207개 점포의 간판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18개 아파트단지의 외부도색을 지원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였으며,
- 대로변 전선 및 전신주를 지중화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지중화사업을 의림대로 5.9Km, 청전대로 4Km, 총 9.9Km를 완료하고
- 그 외 관문도로 이미지 개선사업과 하소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쌍지소공원조성사업 등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제한방엑스포를 대비하여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 다음은 공공디자인 추진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8년 9월부터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디자인센터를 개설하고 매월 1회 <공공 디자인 아카데미>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16회에 걸쳐서 1,12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공공디자인 통합매뉴얼 작성 용역과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디자인가이드라인을 2009. 7. 22완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 또한 시민제안사업을 공모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디자인명품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그 예로써 냉난방버스승강장 설치와 옹벽 및 석축벽화 등 9건의 시민제안사업을 시행하여 도시미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2008년 8월 22일 <제천시 도시환경시설물 등에 관한 디자인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도시환경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심의를 시민 단체로 구성된 「제천시 건축·문화·공간디자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등 절제되고 색깔 있는 디자인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도시미관 및 입간판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미관 개선을 통한 미래형 도시로의 탈바꿈을 위하여 가로미관 저해용도를 규제하고 가로의 입지특성에 적합한 형태 및 외관의 건축물을 유도함으로써 활기찬 도심의 상징가로를 형성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른 미관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10% 완화토록 2003. 3. 18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시 도입하여 건축물의 미관이 향상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 의림대로인 제천역부터 청전교차로 2.4km구간에 대하여는 2004. 3. 5 미관지구로 지정하고 건축물 및 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토록 하는 등 시범가로 지정을 통한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간판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입간판은 유동광고물로서 지도·단속 시 해당업소에 대해 현장에서 계도 및 즉시 철거토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동적인 광고물로서 단속틈을 피해 일부업소에서 설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불법입간판에 대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는 등 입간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불법옥외광고물·입간판의 지도단속실적조치결과(2008-2009) 및 향후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 전수조사결과 정비대상 834건중 불법옥외광고물 789건과 불법입간판 391건, 총1,180건을 단속 및 정비하였습니다.

- 불법옥외광고물중 관련규정에 적법한 광고물 490건을 양성화하였는데 그 중에는 가로형간판 157, 지주이용간판 197, 돌출형 간판 133, 옥상간판 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또한 부적합 광고물 299건, 입간판 391건을 철거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LED불법광고물 45건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현황]

구분	계	가로형 간판	지주이용 간판	돌출형 간판	옥상형 간판	LED 전광류	관문도로 광고물	입간 판	비 고
계	1,180건	207	235	161	5	165	16	391	
2008	652	142	89	123	4	151	16	127	
2009	528	65	146	38	1	14	-	264	

※ 2009 LED전광류 간판 45건은 정비 추진중임.

-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양성화하고 불량광고물은 정비토록 하며, 유동광고물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에는 강제 대집행을 통해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이미지 저해사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무엇보다도 불법광고물이 생산되지 않도록 수시로 옥외광고업자교육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 아울러, 내년 10월, 제천에서 개최예정인 한국옥외광고협회 전국대회를 통해 제천시 광고문화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광고업자의 자정결의를 실시하여 선진광고문화도시로 정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이제 우리는 내년도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14만 시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역사적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제천이 세계속의 한방도시로 웅비하고 여기에 품격있는 디자인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 한다면 10년을 앞당기는 명품도시 제천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이상으로 디자인 명품도시로서의 도시미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서

질 문 의 원	박 성 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답 변 자	시 장 엄 태 영
제 목	제천시 성장동력에 대한 미래전략은?
<p><u>질문요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와 제천시 발전의 연계성 및 향후 계획 ○ 제천시 관광인프라 구축현황과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문제점 및 계획 ○ 영상문화도시로서의 현재와 미래계획 ○ 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관련한 문제점 및 대안 	
<p><u>답변내용</u></p> <p>□ 먼저,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강현삼 의장님과 박성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의원님들의 협조로 당초 확정된 엑스포 기간(2010. 9. 16~10. 5)이 2010. 9. 16~10. 16일까지 11일 연장 조정되어 한 달 간 개최할 수 있게 되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시의 중점 정책은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이와 연계한 성장 동력 산업 육성이며 모든 행정력 또한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앞으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280여일 남아 있습니다. ○ 촉박한 시일이지만 시에서는 엑스포 관련 기반시설과 행사 진행 프로그램 등을 착실히 준비해나가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고 시연과 보완 등을 통해 지금까지 치러진 엑스포 중 정말 특색 있고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좋은 격려의 말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성하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와 제천시 발전의 연계성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는 기본적으로 제천이 대한민국 한방 산업의 중심지임을 전 세계에 알리어 국제적 한방도시로서의 브랜드 선점과 국제적인 한방특화도시로 자리매김하여 한방을 지역의 신 성장 동력산업화로 연계 짓기 위함입니다.
- 특히, 이번 엑스포를 통해 우리 지역을 최소한 10년 이상 발전 시킨다는 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방바이오엑스포를 계기로 국·도비 2,500억여원의 지원을 받아 한방생명과학관, 국제발효박물관, 생·약초 관련시설, 약초허브전시판매장, 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 등 한방산업 관련 인프라를 완비하게 되며, 제천하이테크벨리의 진입로 개설, 단지 내 한방관련 기본 인프라도 완비하게 되어 다른 한방도시보다 비교우위의 발전 잠재력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지역경제 연계에 있어 에코세라피건강특구, 한방 명의촌 등 한방의료 관광시설 투자확대와 레저휴양관광단지 조성, 웰빙휴양타운 등 대규모 휴양관광지구 개발을 위한 민간자본 투자로 연계되어 WHO 건강도시 비전 달성의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 또한, 제천이 '한방도시'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되어 무형의 브랜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한방생태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투자촉진으로 연계되는 산업파급효과도 크게 기대됩니다.
- 특히, 한방 엑스포 개최 이후에는 기 조성한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할 수 있어 대내외적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방관련 바이오, 생약, 의약 관련 업종의 기업유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제천국제한방바이오텍스 이후에는 제천한방Bio산업 진흥재단을 설립하여 현재 육성 중에 있는 한방산업클러스터를 국가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 대규모 예산이 투자된 영구시설은 여타 지역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과학관, 박물관 등은 수익모델을 도입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 유통시장의 판매장 조성은 기부채납을 받아 민간책임 경영체제로 자율과 창의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 또한, 2013년에 개최예정인 “국가지원 동의보감 엑스포”를 적극 유치하여 기 조성된 엑스포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한방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엑스포 이후 세부적인 한방산업 추진계획은 현재 『한방특화도시 2020 프로젝트』가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본 용역은 제천 한방산업의 10년 프로젝트로 제천의 주요 한방정책 방향서임을 감안 여러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제안 부탁드립니다 한방산업이 우리시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음은 제천시 관광 인프라 구축 현황과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문제점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까지 수립된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은 총 5개 관광지에 1,675실의 숙박 시설을 민자 5,500억여원, 공공 9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청풍호반 주변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 지금까지 청풍리조트 호텔, ES리조트 등 2개 숙박시설에 1,800억여원의 민자가 투자되었고, 의림·박달·청풍호 3개권역에 총 33건 605억여원의 사업비 투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지난 10여년간 총사업비는 민자 1,800억여원, 공공 700억여원 등 총 2,50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악호반휴양 및 생태체험형 종합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

- 그러나 의림지권의 경우 의림지 테마공원조성사업의 지연 등으로 인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박달권의 경우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인 자원이 부족하며, 청풍호권의 경우 환경규제로 거점도시가 형성되지 못하여 체류형 관광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변화하는 관광추세에 맞춰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과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정부의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관광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우선 녹색생태 관광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 2010년부터 청풍호 수몰선을 따라 산책로를 조성하는 “청풍호반 트레킹 및 자전거 코스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과 옥순대교 ~ 청풍대교 구간 중 수산면 상하천리마을을 녹색관광마을로 조성하는 “녹색관광마을지정 및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하겠습니다.
- 2008년부터 추진 중인 청풍호반 경관조명사업을 2010년 마무리하고, 산악 체험장 조성사업 또한 전국 지자체 중 최고의 선진 시설로 조성하여 제천이 아웃도어 산악체험의 메카가 되도록 하고, 비봉산을 국내 최고의 전망관광명소이자 최대의 활공마니아가 찾는 활공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수상레저사업은 지난 9월 댐법 개정으로 수상 레저 목적의 하천점용허가권이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전국 댐 중 최초로 금월봉 및 성내리 등 1지구 2개소에 시행할 계획으로, 지난 11월 25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상황이며, 2010년 6월 이전에 수상레저 사업장을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림지권은 의림지 사적지 지정 사업과 병행하여 의림지 전원에 마파크 조성기반을 구축해 나가며, 의림지 스토리텔링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우륵샘 재현사업은 금년말까지 준공하고, 의림지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을 2010년 완료하여 의림지를 시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역사문화 및 생태교육의 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박달재권은 전체적으로 관광객 유입 메리트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박달재에 있는 목불 및 현재 조각중인 500나한상 관광자원화를 통한 박달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청풍은 청풍문화재단지, 청풍랜드 등 제천시 주요관광자원이 밀집된 입지적 거점으로, 청풍소재지가 확대 개발되지 않고는 청풍이 체류형 관광지로 활성화 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청풍소재지 확대 개발에 대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청풍소재지 확대개발과 비봉산일원 관광자원개발 등이 수질 오염 총량제 산정 범위 내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 대처 작업 및 청풍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영상문화도로서의 현재와 미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2005년 청풍영상위원회 설립, 영상문화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8년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을 건립하였습니다.
- 올해 제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상영작 87편중 62%인 54편 매진, 거리의 악사 페스티벌 89개 팀 참여, 야외음악공연의 좌석 매진으로 인한 입석권 발권, 인터넷 노출 포함 3,920여회 언론 노출 등 지역 홍보는 물론 지역의 문화 브랜드 형성 및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제천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 또한, 제천영상미디어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지역에서 접하기 힘든 독립영화 상영,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 지역의 영상 인력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풍영상위원회는 올해 55편의 작품을 로케이션하고 21편의 작품을 우리 지역에서 촬영하게 하여 영상속의 지역홍보와 지역경제의 실질적 유발 효과를 도모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의 영상 제작 및 유치를 선도하고 있는 APN(아시아영화인공동협력기구)의 정기총회를 2010년 제천에 유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 앞으로의 영상문화산업은 현재까지의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브랜드를 더욱 높여나가고, 부가가치 확대를 위하여 관광산업과 긴밀히 연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 현재 구상하고 있는 시내 중심권 영상우주공원과 태백선 이설에 따른 철도 영상 테마파크 등 영상인프라 구축사업은 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와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원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가 직면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는 과거 태백권의 배후 상업도시의 기능쇠퇴기에 지역성장 동력산업으로의 대체산업을 일찍이 발굴 육성하지 못한 점과, 최근 경제위기와 수도권 규제 완화, 세종시 등 정부정책의 다변화에 따른 투자유치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이라 봅니다.

○ 특히 우리시의 산업구조는 제조업(11%)보다 도·소매업 등 소상공업의 비중이(33%) 월등히 높은 열악한 구조로 유통산업 구조변화와 맞물려 지역상권은 침체 일로에 있습니다.

○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기반의 자립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의 산업구조를 한방건강산업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관련 1차 산업으로 국제기준에 의한 친환경 GAP한약재생산 품질인증으로 국내 최고품질의 한약재 유통을 선점하고, 2차산업으로 제1·제2 바이오벨리를 BT특화단지로 한방바이오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신약, 건강기능성 제품 등 고부가가치상품을 개발하여 매출을 신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3차 산업으로 에코세라피단지, 한방명의촌 개발과 양한방 협진병원 등을 유치해 의료관광객을 대거 유입시켜 헬스투어리즘 의료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유치 및 기업 지원으로 획기적인 고용창출을 해나가겠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는 투자유치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시에서는 제1 지방산업단지 100%분양에 이어 현재, 조성 중인 하이테크벨리는 2010년 엑스포 행사 이후에는 즉시 기업입주가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전담반을 편성 한방바이오 관련기업 유치에 집중하고
- 유치기업에 대해서는 엑스포 영구시설 이용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한 지원과 함께 원재료, 연구개발, 마케팅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조기 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우리시 대규모 민자 투자사업인 에코세라피건강특구와 웰빙휴양타운 조성사업도 엑스포 행사를 계기로 투자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내년까지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건립과 용산철도차량기지 이전, 리솜리조트 준공도 내년까지는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민간투자가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로 연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수도권에서 가까운 건강관광도시의 브랜드 선점을 통해 의료건강 및 레저스포츠, 휴양관광단지 개발에 민간자본을 대거 유치하는 등 지역 내 유입인구 확대 기반 조성으로 관광경기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 특히, 투자유치조례에 의거 유치기업에 대해서는 50억 이내 지원이라는 우리시만의 파격적인 투자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방, 연수, 관광, 생태 관련 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유치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기업 주식 갖기 운동”과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향토기업으로 확고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유통업의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등 상생의 유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지역에는 현 9천9백여 업체 3만여명의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과 같이 전자상거래나 홈쇼핑, 중대형마트 등이 블랙홀이 되어 지방의 자본을 유출시킨다면 소상공인이 자리할 곳은 없으며 지역의 미래 또한 없다하겠습니다.
- 시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금년 10월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축으로 중대형마트와 소상공인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으며, 제천시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소상공인 창업 및 보육교육 활성화 등 소상공인 보호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유통체계 선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급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예 힘을 모아가겠으며, 우선 대기업의 유통업체 입점 시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 지원하여 지역의 소상공인이 지역 경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본과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 여건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농산업 관련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주체들의 유기적인 협력과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 이 자리를 빌리어, 지역경제 활력화 전반적인 사항을 대책코자 의회 차원에서 “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까지 구성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시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리며
-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이외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적극 개발하여 활력이 넘치는 제천시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박성하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